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뉴스레터

35호 2015년 4월

등록일자 2014.09.24 등록번호 동작 라00076 발행일 2015년 4월 발행(35호) 편집인 노재화 발행처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기획·편집·인쇄 경성문화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매월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본원의 동정을 비롯하여 전문건설 관련 정책·제도의 주요 동향과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권두사
연구원소식
최신건설정보





안녕하십니까?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이 봉 찬 입니다.

만물이 태동하고 봄의 활기로 가득해야 할 4월이 우리 곁으로 왔지만, 신록에 대한 반가움 대신 대한민국은 깊은 슬픔과 죄책감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방심과 불법, 편법들이 누적되면 얼마나 큰 재앙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지를 1년전 우린 망연자실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쉬이 극복될 수 있을거라 생각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큰 교훈으로 남아 건설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전문건설인들에게도 깊은 책임감과 함께 숙제를 건네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기간사업인 건설업은 언제든지 대형재난과 연결될 수 있기에 우리 전문건설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건설시공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선두주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전문건설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많은 연구물들을 만들어 왔으며,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느끼는 비효율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자료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가족 여러분!

우리 건설업계가 당면한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 우선으로 인한 SOC사업 감소는 세계경제 불황과 겹쳐 유례없는 건설불경기를 만들었으며, 적정한 공사원가를 반영 받지 못하여 공사를 수수하고도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협회는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삼억원에서 십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자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면제 및 계약이행보증의 부당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법을 발의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의 권익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백억원미만 공사의 실적공사비적용 영구배제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협회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유기적인 협력이 없었으면 절대 이루어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거센 풍랑을 헤쳐나가는 전문건설가족들에게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줄 것을 바라며, 전문건설인 가족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2015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성과발표회” 개최

- 우리 연구원은 오는 4월 23일(목) 오후 2시,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15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성과발표회는 연구원에서 2014년에 수행한 연구과제 및 주요 성과들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 관계자 및 학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연구 활동 전반에 반영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 이날 발표회에서는 홍성호 연구위원이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활성화방안”에 대해, 김태준 선임연구원이 “공제조합 보증리스크 측정방안 연구”에 대해, 박승국 연구위원이 “맞춤형 물산업 해외진출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질 종합토론은 강인석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변희섭 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교수, 이병철 K-water 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장진우 (주)일양토건 부사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진행된다.
- 지난해 우리 연구원은 위기 속에서도 전문건설업의 이익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 확대,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강화, 부당특약 등 불공정행위 규제강화, 실적공사비제도 전면 개편 등이 추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동 성과발표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 유일의 싱크탱크로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전문건설업계의 위기극복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14:00 ~ 14:30	개 회 식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2014년 수행 연구과제 소개 (이종광 연구위원)
14:30 ~ 15:20	주제발표	소규모 단순 복합공사 활성화방안 (홍성호 연구위원) 공제조합 보증리스크 측정방안 연구 (김태준 선임연구원) 맞춤형 물산업 해외진출 방안 (박승국 연구위원)
15:20 ~ 16:00	종합토론	좌장 강인석 (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토론 변희섭 (한림대학교 재무금융학과 교수) 이병철 (K-water 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원규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 장진우 (일양토건 부사장)



2015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및 연구사업 실적·추진계획 보고

- 우리 연구원은 지난 4월 15일, 전문건설회관 18층에 위치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소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연구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2014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 노재화 원장은 2015년에도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요청한 분리발주제도 활성화, 해외건설 하도급진출 활성화, 조합 보증리스크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등의 기본 연구과제와 자체 기획과제 및 외부 정책과제 등 총 30여건의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업계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15 아시아-태평양주거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 발표

- 우리 연구원의 장수명 공동주택 연구팀(연구책임자 : 이보라 연구위원)은 지난 4월 10일, “Housing 2.0 ; Search for New Paradigm for Collaborative Housing”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5 아시아-태평양 주거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Environmental Analysis of the Target Countries for Overseas Expansion of Long-Life Housing”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발표자 : 정준수 책임연구원)
- 동 국제학술행사는 지난 4월 9일부터 나흘간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전남 광주)에서 한국주거학회, 한국 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전 세계 21개국 참가자들이 논문을 발표하였다.
- 동 논문은 우리 연구원에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수행중인 국토교통부의 “비용절감형 장수명 주택 보급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3세부 : 장수명주택 해외진출 방안 연구)” 연구용역의 일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연구가 이어질 계획이다.

“통일대비 북한 건설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전문건설업계의 대응방안” 연구심의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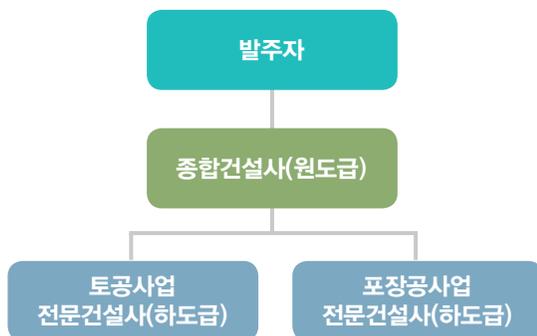
- 우리 연구원은 지난 4월 1일, 원내 기획과제인 “통일대비 북한 건설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전문건설업계의 대응방안” 연구과제의 연구심의회를 개최하였다.
- 본 과제는 전문건설업계의 북한 건설협력사업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한 건설협력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나아가 진출방안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이번 연구심의회를 통해 나온 심의위원(전문가)의 심의내용을 반영·보완하여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하였다.



전문건설기업도 10억까지 복합공사 원도급 가능(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의 하나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및 발주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원칙적으로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는 종합업체가 원도급하고, 전문업체는 등록업종에 대해서만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지만, 예외적으로 3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하여서는 전문업체도 원도급 공사가 가능하였고, 이번에 공사규모를 10억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 예를 들어 5억원이 소요되는 주차장 설치공사(토공(흙쌓기)+아스팔트포장)는 기존에는 종합건설업자만 원도급이 가능하나, 이제는 토공사업과 포장사업업을 함께 등록하고 있는 전문건설기업이라면 원도급이 가능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확대 전(종합공사로 발주)]



[확대 후(토공+포장공사업 전문공사 발주가능)]



* 규제기요틴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라는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4년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114건을 순차적으로 개선 추진키로 하였다.

제7차 세계물포럼, 대구-경북에서 개최

- 지구촌 최대 물 관련 국제행사인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이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대구와 경주에서 열렸다.
- 이번 세계물포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물'을 주제로 각국 정상 수반과 물 분야 기관·기업·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류 공통의 과제인 물 문제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장이 되었으며, 포럼 기간 중 물 산업과 관련한 활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기도 했다.
- 국토교통부는 한국-OECD간물관리 정책 공동연구를 위해 OECD 사무총장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으며, 한중일 수자원 장관회의를 통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각국에서 추진 중인 수자원 분야 정책에 대한 상호공유를 통해 3국의 물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개발 도상국가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도 성과와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전파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제고된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물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21세기 '블루골드'인 세계 물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 신규업체 등 시공능력 평가액 공시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3월 수시평가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였다. 수시평가 업체(유보업체 포함)의 자세한 공시내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 회원사 정보-시공능력평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업신용안심서비스” 개시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지난 3월말부터 조합원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인 “기업신용안심서비스”를 개시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신용정보 집중제공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KED)와 제휴를 통해 '원도급자 및 거래처의 신용정보'를 조합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이 등록한 원도급사나 거래처에 대한 각종 신용정보를 웹사이트, 이메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속정확하게 조합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원도급자를 비롯한 주요 거래처 부실로 인한 조합원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원하는 거래처의 신용알람등급, 금융권 단기연체현황, 금융불량정보, 휴폐업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변동사항을 이메일과 SMS로 통보받을 수 있어, 원도급자나 거래처의 부실로 인한 채무불이행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조합원에 대해서도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자사기업의 우발적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하락을 방지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다.
- 한편, 조합은 공사의 규모 및 진척도 등에 따라 현장관리, 하도급계약, 보증서 발급 등에 대해 맞춤형 법률·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현장 맞춤서비스'도 준비 중이다.